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 snuarta@naver.com 밴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 본회소식



▲사진=2023년 3월 2일 서울대학교미술관 1층 오디토리엄에서 개최된 모교 2023년도 입학식 광경(기사 3면)

본회 권영걸 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취임



본회 권영걸(69)은미/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회장이 대통령 직속 건축정책 심의조정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7기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신임 권영걸 위원장이 공간디자인, 조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도시 공공디자인 전문가이며, 저술과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디자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위촉 이유를 밝혔다. 신임 권위원장은 "신문명 시대 국민의 삶을 담은 새로운 미래공간을 위한 건축·도시환경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공간을 국민과 소통하고, 해당 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행하겠다."고 밝혔

다. 신임 권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부터 2년간 17명의 신임 민간위원과 함께 정부 각 부처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신임 민간 위원은 지자체·공공기관·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학계 10명,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1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범 부처 정부위원회로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했으며, 국가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을 지낸 권위원장은 국내 공공디자인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서울시에서 초대 디자인재단 이사장을 지내며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2007년 서울시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부시장)을 맡았고, 저서로는 '신문명디자인',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공공디자인 행정론', '공간디자인의 언어' 등이 있다.

SNU빌라다르 & 베리타스미술상전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전관에서 'SNU빌라다르 2023'을 개최한다. 본회와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공동주최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SNU빌라다르'는 1946년 모교 개교이후 원로세대부터 젊은세대까지 동문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으는 전시이다.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빌라다르는 53학번부터 19학번까지 총 20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치열한 예술정신으로 지난 70여년간 모교를 빛내온 선배들과, 모교를 갓 졸업하고 곧 한

국 미술계의 주역이 될 후배들이 함께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모교 졸업전시 동창회장상(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인 '제2회 베리타스미술상전'이 함께 진행된다. 베리타스미술상은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본회에서 2021년 제정한 미술상으로, 지난해 수상자 김재환(17디자인/금공), 김해인(18디자인/시디), 오지원(18서양/영상), 우현주(21서양), 유희정(18디자인/산디), 이재현(17디자인/도공), 이채원(19동양), 홍예준(17조소) 등 8명의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시에 참가하는 작가들의 소품전이 마련되어 전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작품 소장 기회 제공을 예정이며, 특히 서울대학교 동문들에게는 특별할인의 혜택도 주어진다. 코로나 19로 인한 제약요소가 해제된 만큼 모처럼 관련단체 및 미술계 인사들을 초대해 참가작가들과 오는 4월 18일(화) 오후 4시에 축하공연과 함께 개막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인사말

통합과 소통을 넘어 미래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올해로 설립 77주년을 맞으며 배출한 동문이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미술대학은 우리나라의 지도적 미술가들을 배출해 왔고 우리 교육계에 미술교육의 규범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대미대동창회는 수 년전 온라인전시인 Art-On-The-Line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전시는 그 후 아카이브로 전환되어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950년 첫 졸업 선배님들부터 2023년 최근 졸업한 동문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큰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동문들의 작품을 보고 있으며, 누적 방문자가 11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제3회 SNU빌라다르(SNU Villa d'Art)전이 열립니다. 광복이후 한국미술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원로세대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한 젊은세대까지 동문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로, 200여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치열한 예술정신으로 모교를 빛내온 선배들과 한국화단의 주역이 될 후배들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교 졸업전시 동창회장상 수상작가전인 제2회 베리타스미술상전이 함께 진행됩니다. 베리타스미술상은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본회에서 2021년 제정한 상입니다. 선배님들은 이제 사회에 나와 새롭게 출발하는 후배들의 작품을 격려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미래 세계를 감동시키는 예술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흔쾌히 참여해주신 동문 여러분과, 전시회를 위해 수고하신 상임부회장님들, 사무국장님, 간사님, 연구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장
권 영 걸

축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전 SNU빌라다르 2023 전시를 축하하며

코로나19 펜데믹의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밝은 빛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동문들이 뜻을 모아 전시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된 만남과 소통의 어색함과 기대감 속에서 200여명이 참가하는 전시는 더욱 어려운 국제 정세와 경기 침체의 분위기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시된 작품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작가들이 창의적 실험정신으로 매체를 활용하여 이 세상을 통찰력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어깨는 짓누르는 환경과 경제 위기의 상황을 작품에 담긴 더 큰 시야에서 바라보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예술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 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들은 77년전 개교한 이래 예술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척박한 시대와 많은 사회적 변화상 속에서도 창작의 정신을 중심에 두고 열정적인 작업을 이어간 덕분에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근현대 화단을 풍요롭게 해 온 자취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동문들의 예술정신과 실천은 미술대학의 자부심이며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미술대학 동창회와 뜻있는 동문들은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고 후학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전시는 1953학번부터 2019학번까지 참가하며 원로작가에서 중견작가와 신진작가까지 70여년의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면에서 매우 흥미롭고, 신진작가들에게는 전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시를 진행해 오신 권영걸 동창회장님과 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창회전에 좋은 작품들을 출품하며 적극 동참해주신 동문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술대학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미술대학 동창회가 사회에 좋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철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모교교원 신규임용

모교(학장 정의철)는 지난 2월 1일자로 동양화과 정해나 교수를, 3월 1일자로 서양화과 윤혜원 교수와 박관택 교수, 디자인학부 안성모 교수를 신규임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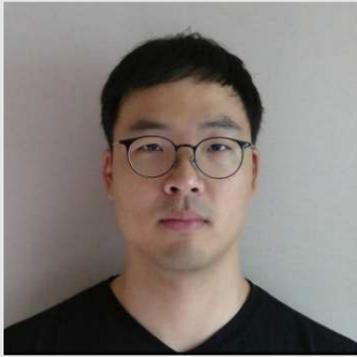
동양화과 조교수 정해나(03동양)

모교 동양화과 졸업 후 동 대학원 석사와 동양화전공 미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2년 은신술(성남큐브미술관, 성남), 2020년 긴 머리와 그보다 더 긴 혀를 가진 동물의 실종(OCI미술관, 서울), 2020년 범 없는 골에 토끼가 스승이라(일루와유 달보루, 서울), 2019년 밤 보자기와 둥근 얼굴(영은미술관, 경기광주) 2015년 세 개의 불(갤러리도스, 서울)등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가졌다. 2021 제5회 광주화루 우수상을 받았고, 2020 OCI Young Creatives로 선정되었으며, 2019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을 받았다. 2018년 영은미술창작스튜디오 11기 장기 입주작가로, 2017년 평화문화진지 1기 입주작가로 지내기도 했다.



서양화과 조교수 윤혜원

서울대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건축미술사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뉴햄프셔대학 전임강사,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레너드로데근대미술센터와 뮌헨미술사중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스미스소니언미술관, 캐나다 국립미술관, 독일 국립중앙미술연구소의 지원으로 유럽의 역사적, 혁명적 아방가르드의 전후 망명, 부분적 소멸 그리고 변형의 과정 등을 연구해 결과가 October와 Fotogeschichte 등에 출판된 바 있다. 현재 현대미술 안에서 파스티쉬 개념이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과, 1950년대 이후 소비에트 공화국을 넘어 발전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양화과 조교수 박관택(02서양)

모교 및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 MFA Fine Arts, 컬럼비아대학교 Teachers College Art and Art Education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1년 페어링(인천아트플랫폼 G1, 인천), 2020년 어제모레(경기도미술관, 안산), 2019년 버퍼링(소마미술관, 서울), 2018년 Velocity of Minds(클러스터 갤러리, 뉴욕)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21년 인천아트플랫폼, 등 다수의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디자인학부 부교수 안성모(94산디)

모교 산업디자인과와 동 대학원 디자인학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쿠퍼유니온 건축학과(The Cooper Un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Art)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부교수로 재직 해왔으며 2020년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획 및 공간조성(서울디자인재단)과 기아자동차의 패러매트릭기법을 통한 기아 디자인 스킵처 개발과 2017년 미래 기아 친환경차 특화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요소 연구 등을 진행했다.



입학식 개최

모교는 지난 3월 2일 서울대학교미술관(MoA) 1층 오디토리엄에서 2023년도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2023학년도는 학부 106명, 대학원 60명으로 총 166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입학식은 학장 환영사, 학교 및 전임교수 소개, 동문 환영 인사, 신입생-교수 인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정의철 학장은 ChatGPT가 작성해 준 '학장 환영사'를 일부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은 말로 본격적인 환영사를 전했다. "남들이 다 알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일정한 규칙이 있는 반복적인 일들은 이제 지능을 가진 기계가 하나씩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미술대학의 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반복적인 뻘한 질서가 있는 일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표현, 실천을 하는 창작가로서의 길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수성을 가진 창작 분야의 미래가 유망하다는 미래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형식을 답습한다면 미술의 미래도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 서울대학교라는 수식어에 안주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미술대학 역시 학생들이 다양한 길과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탐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모집

모교는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와 함께하는 학관협력사업인 '관악창의 예술영재교육원'(원장 김형숙)의 제11기 신입생을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은 상상력과 창의력뿐만 아니라 문제 인식력, 협력학습에 필요한 배려, 협동심 등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예술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방학 중 미술을 기반으로 한 시각예술 및 인문, 사회, 과학 등을 접목한 주제별 융합예술교육을 진행한다. 수업은 모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온라인 병행이 가능하다. 관악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석갤러리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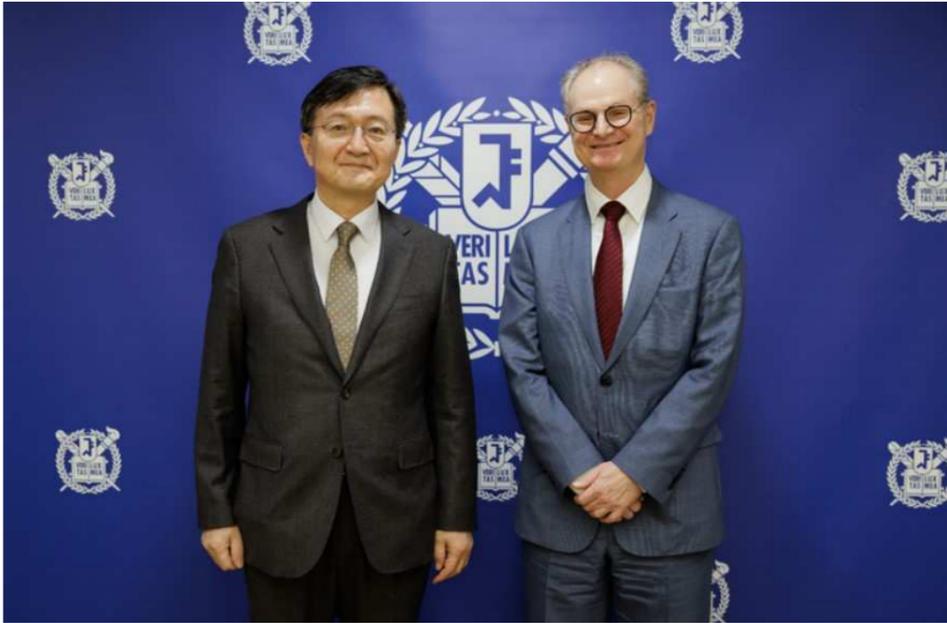


순자의 방 3. 2 - 3. 15

권에서(20조소)

'순자의 방'은 순자라는 한 여성의 그때와 현재를 담은 전시이다. 전시장 안에는 순자를 표현하는 직관적 매체와 그녀의 손녀인 작가의 해석이 가미된 은유적 매체가 혼재되어 있다. 다중적인 관점을 가진 이러한 요소들은 전시의 주요인물인 '순자'의 현상태를 담아낸다.

서울대소식



시카고대학 총장 접견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지난 3월 3일 미국 시카고대학 폴 알리비사토스 총장(Paul Alivisatos)과 접견하였다. 알리비사토스총장은 유총장의 취임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현 시점에 양교의 협력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유총장은 축하에 감사인사를 하였고, 양교가 공통적으로 강점을 지닌 경제학, 공학 등의 분야가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교류 협력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답하며 활발한 학술연구 교류활동을 확대해나가자고 하였다. 이날 접견에는 서울대 김재영 연구부총장,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석좌교수, 박정원 부교수, 중앙도서관장 장덕진 교수, 국제협력본부 조승아 본부장이 배석하였다.

입학식 개최



2023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3월 2일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올해 신입생은 학사과정 3610명,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2693명, 박사과정 807명으로 총 7110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유홍림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대학의 배움은 '참된 지성인'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학제를 뛰어넘는 배움"으로 통합적 사고능력과 창조적 융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성인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또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참된 지성인이 되시라"라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개인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시선을 넓히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날개를 활짝 펼치시라"라고 했다.

비전공자를 위한 SNU AI 진로캠프 개최



서울대 경력개발센터는 지난 2월 7일 더욱더 폭넓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비전공자를 위한 SNU AI 진로캠프'를 롯데국제교육관에서 개최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과 자신의 진로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캠프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와 개별 실습, 팀 프로젝트 활동이 차례로 이어졌다. 먼저, 학생들은 오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차츰 이해해 나갔다. 오후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자신의 진로를 연결하는 팀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발표를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관한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캠프가 마무리되었다.

문화예술원 심포지엄 '순환성' 개최



서울대 문화예술원(원장 이증식)은 지난 3월 3일 서울대학교 미술관 오디토리엄에서 심포지엄 '순환성'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원과 관계, 기술과 예술의 순환구조에 관한 담론을 해체하고, 차세대 창작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와 실천을 포착하여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고자 국립현대미술관 이지희 학예연구사, 문화예술원 이증식 원장, 문화예술원 박제성 부원장이 기획한 것이다. 이번 '순환성' 심포지엄에서 기술 발전과 환경 위기 사이에서 책임은 커지고 더 취약해진 인간이 기술을 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술의 상상력에 기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일부 단과대 보궐선거 추진

현재 인문대, 음대, 자연대, 미대에서 학생회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보궐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농생대의 경우 후보 등록 기간에 등록한 선본이 없어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이 5개 단과대는 지난해 11월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무산돼 연석회의 또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지속해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본이 당선된다면, 이들의 임기는 대부분 4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약 8개월이다.

S카드 디자인공모전 개최

제63대 총학생회(총학) '정오'와 서울대 학생지원과 주관으로 S-card 디자인 공모전이 지난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대상으로 선정된 디자인은 내년 3월 S-card 디자인에 적용될 예정으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디자인이 변경된다. S-card 디자인공모전에는 재학생 및 휴학생과 교직원 모두 참여가 가능했다. 이후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미대 전문위원, 우리은행 전문위원, 총학생회장으로 이뤄진 S-card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다섯 작품이 선정되며, 2차 심사에 의해 전교생과 교직원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 세 작품의 순위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10일 발표된다.

기초교육원 학습클리닉 워크숍 열려

서울대 기초교육원은 지난 2월 6일 뇌과학적 학습원리와 이에 따른 효과적 공부법을 주제로 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이민주 교수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학습클리닉 워크숍은 학습방해요인 탐구, 나의 강점 탐구를 통한 학업 동기 강화, 기질과 성격을 측정하는 TCI 검사를 활용한 유형별 학습전략 탐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비대면 워크숍에서는 익명 오픈 카톡방을 활용해 학점과 학습 고민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양방향 소통이 이뤄졌다. 이교수는 "효과적 학습은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효율을 올린다"며 학생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이 학업 성취를 넘어 만족도 높은 삶의 중요 조건임을 강조했다.

서울대미술관 전시

시간의 두 증명
모순과 순리

모순과 순리 3. 24 - 5. 28
서울대미술관 전관

ART BOOK
아트 북 콘서트

2023. 4. 5. 수
15:00 - 16:30

CONCERT

아트 북 콘서트 4. 5
서울대미술관 오디토리엄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총장초청 간담회 개최

총동창회는 지난 2월 2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유홍림총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과 서울대 유홍림 총장을 비롯해 서울대 김성규(81국문) 교육부총장, 김재영(82토목) 연구부총장, 윤영호(84의학) 기획부총장과 총동창회 변주선(60영어교육)·이정익(ACAD34기)·정팔도(AIP1기) 상임부회장, 관악경제인회 이부섭(56화공) 회장과 서병륜(69농공) 농생대동창회장, 허영(70간호) 간호대동창회장, 정진섭(75산공) 공대동창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회장은 인사말에서 "젊은 총장이 학교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이 적극 지원하자"라고 말하였고, 유총장은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는 서울대를 만드는 일에 동문 여러분의 지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시상식 개최



2023년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제25회 관악대상 시상식이 지난 3월 24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김종섭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동문인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서울대 유홍림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유총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대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며, 서울대에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악대상 수상자로는 이재원(55상학) 원앤씨 회장, 이부섭(56화공) 동진씨미캠 회장, 조경일(64약학) 하나제약 회장, 하기환(66전기공학) 한남체인 회장 등 4명이 선정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본회 이민주(76회화)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장권봉(56응미)·손문자(62응미)·정옥란(62응미)·서동희(66응미)·하수경(70회화)·이춘덕(72회화)·박소영(73회화)·변영혜(78회화)·한상돈(81응미) 동문등이 참석했다(위 사진).

총학생회 간담회 개최



총동창회는 지난 2월 2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 이경형 상임부회장, 이승무 사무총장, 송우엽 사무차장과, 총학생회 조재련(20자전) 회장, 박용규(20경제) 부회장, 모교 유준희(83물리) 학생처장, 지의규(91의학) 학생부처장이 배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그리고 학생회에서 학교축제를 창의적인 축제로 만들자는 의견, 학생회 출신 동문들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김회장은 학생회 활동에 헌신하는 후배들에게 "사회에서도 학생회 출신 동문들의 리더십을 높게 사고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종섭 회장, 관악경제인회에 5억원 기부



김종섭(66사회) 회장이 총동창회 관악경제인회에 5억원을 쾌척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8월 관악경제인회 창립총회에서 김회장이 약속한 것이다. 관악경제인회는 이부섭 회장, 서병륜 수석부회장, 성기학 부회장의 찬조금과 회비 수입에 이번 기부금을 더해 총 14억여원의 재정 규모를 갖추게 됐다. 지난 3월 7일에는 총동창회에서 서울대 발전기금에 글로벌 사회공헌단 협력사업을 위한 지원금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가 공헌단과 동문이 협력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인 '라오스 SNU공헌단'과 '다문화자녀 SNU공헌단' 사업을 지원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총동창회는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도 1000만원을 기부했다.

4월 등산대회

- 일 시 : 2023년 4월 14일(금) 오전 9시
- 산 행 지 : 강화도 고려산
-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 참가방법
 - 참가신청 :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 기재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김밥·오찬 및 기념품 제공)
 - 참가비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 홍길동4월등산)

4월 국토문화기행

- 일 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9시
- 답 사 지 : 강화 교동도
-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 주 제 : 서해의 인후지(咽喉之地)
- 안내해설 : 이민부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 신청방법
 - 참가신청 :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 기재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김밥·오찬 제공)
 - 참가비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 홍길동4월국토)

4월 수요특강

- 일 시 :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 주 제 :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가신청 :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 기재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2만원(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 참가비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 홍길동4월수요)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후원금	이사 10만원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28-3.27)-가나다순

- 부회장 회비** 김황록(80조소) 조운영(74회화) 채혜선(82응미) 최진희(83회화) 하수경(70회화)
- 이 사 회 비** 김은정(81회화) 박소영(73회화) 이애자(73응미)
- 일 반 회 비** 김두진(93서양) 김민영(19동양) 김성우(87동양) 김순애(78응미) 김영호(90조소) 김용경(90조소) 김지연(12서양) 김춘이(59응미) 김형주(66회화) 김혜원(80조소) 김희영(75회화) 노명자(63응미) 박광철(57미학) 박덕실(81회화) 박소영(92동양) 박수빈(12디자인) 박재만(83동양) 박재은(63회화) 박희자(64회화) 변진외(61회화) 송윤주(94동양) 송인옥(82회화) 심정수(60조소) 윤 슨(95공예) 윤옥진(64조소) 이경림(86동양) 이명주(94조소) 이병석(58회화) 이승령(67조소) 이은경(77회화) 이은산(68회화) 이인경(77회화) 이혜민(74응미) 이혜원(77응미) 이호경(17동양) 정수연(석22동) 정진서(98조소) 조명식(82회화) 조이습(16조소) 조재연(77조소) 채현교(82응미) 최병건(87공예) 하수민(15동양) 한영옥(58회화) 한운성(65회화) 함미애(81회화) 홍순모(68조소)

후 원 금 한현정(08동양) 350만원
광고 후원금 조래원(75회화) 20만원 디팩 15만원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영배(60회화) 본인상	2023년 3월 4일, 대전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박중선(70회화) 본인상	2023년 3월 28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윤성진(72조소) 모친상	2023년 3월 28일, 서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정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가 http://snuarta.or.kr 로 변경되었습니다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F(안물)		P(풍경)		M(해경)		사이즈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100*80	6,6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탐방

복합문화공간 산울림

임수진(82회화)



소극장 산울림은 어떤 곳인지?

소극장 산울림은 저의 부모님이 신 연출가 임영웅 극단 산울림 대표와 불문학자인 오증자 부부가 1985년 3월 극단 산울림 자체 전용 극장으로 지으셨습니다. 개관 이후 38년간 보수 속의 진보 정신으로 한국 소극장 연극의 메카로 제자리를 지켜온 소극장 산울림은, 세계적 명성에 빛나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비롯하여 20세기의 대표적 고전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왔으며, <산울림 고전극장> <산울림 편지콘서트> 등과 같은 독창적인 기획으로 연극, 음악, 무용 등등 다양한 장르의 좋은 공연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부모님을 이어서 극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계기가 있는지?

산울림극장 운영을 맡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저는 대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산울림 개관 6년 후인 1991년부터 20년간 미국에서 지내다가 2011년 귀국했기 때문에 산울림에서 공연된 많은 공연들을 보지 못했고, 공연, 극장 관련 일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극장 일들을 도와드리고, 노후 된 극장 건물 보수 공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배우면서 하다 보니, 지금은 극장, 갤러리, 카페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극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극장 산울림은 극단 산울림 자체 전용 극장이긴 하지만, 개관 초기부터 연극뿐만 아니라, 음악, 현대무용, 전통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왔습니다. 2016년 개관 31년 만에 소극장 건물 2층에 산울림 아트 앤 크래프트를 개관하고, 산울림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공연 뿐 아니라 전시 및 교육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2021년 1층 산울림 카페도 산울림이 운영하게 되면서 전시, 공연 공간이 보다 확장되었습니다. 연극, 미술 등을 구분 짓기보다 연극, 전시 및 체험을 연계하는 것을 기획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하고 자유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극장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공연도 진행하고, 카페에서 전시와 공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되는 공연과 같은 주제로 기획된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공연이나 전시가 지금껏 이뤄졌던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이뤄질 때 예술가들은 자유롭게 더 많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접하는 관객들은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울림에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전시도 보고,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건물 2층과 1층에 있는 산울림 아트 앤 크래프트는 회화, 금속, 도자, 사진 등 여러 분야 작가들의 예술성과 실용성을 지닌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갤러리, 아트샵과 공방이 함께 어우러진 곳입니다. 예술 작품이 사방 하얀 벽으로 이루어진 갤러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어떤 공간에 두어

도 좋고,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개성 있는 작가들의 손으로 창작된 예술 작품이 사람들과 편안하게 만나, 일상생활에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더해 주길 바랐습니다. 1층 공간은 카페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예술작품을 보다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산울림 아트 앤 크래프트를 열고 '복합문화공간 산울림'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한 가지 더 시도한 것이 '산울림 아카데미'입니다. 연극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진행하는 산울림 연극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림과 공예를 배울 수 있는 산울림 아트 아카데미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가 곧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극장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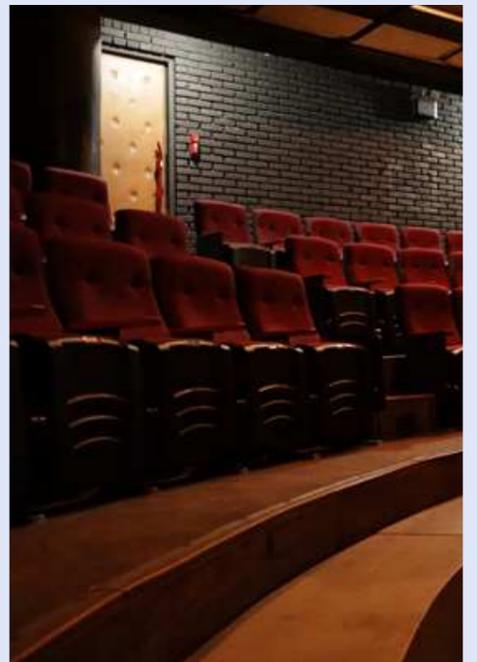
극장 일을 하다 보면 예전에 산울림에서 공연을 보고 연극을 전공하게 되었다는 젊은 연출가, 배우들을 종종 만납니다. 예술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연극뿐 만이 아니라 미술, 음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연이나 전시는?

소극장에서는 6월에는 <플레이 워드 햄릿> 7, 8월에는 <산울림 고전극장-고전문학, 이야기의 기원을 찾아서>가 공연될 예정입니다. 산울림 아트 앤 크래프트 1층에서는 3월 29일부터 서울대 동문전인 오밀전, 5월에는 김지연 작가 개인전, 7, 8월에는 산울림 고전극장 공연과 연계하여 동시대 작가들의 <어떤 응시>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문과 동창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대 위의 배우들은 관객을 마주 보고, 교감하면서 공연하기 때문에 관객이 없으면 공연을 할 의미를 잃게 됩니다. 배우들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공연 관객들은 한 편의 연극을 보면서 감동,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미술, 음악 등 모든 예술 장르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작가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관람객은 그 작품을 보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술이 보다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배우, 연주자, 작가 등 예술가와 관객 모두 좋은 경험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나가길 바라고, 그게 산울림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술을 하시는 모든 선후배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예술이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더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만들고, 예술의 기류를 확산해가는 일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극장 산울림에 오시면 공연과 전시, 따뜻한 커피가 있으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소극장 산울림

주 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57 소극장 산울림

연 락 02-334-5915

홈페이지: www.sanwoollim.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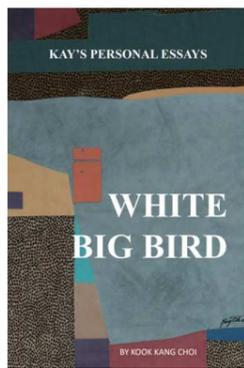


전시장에서 열린 사제모임

송영수(작고/50조소) · 최의순(53조소) · 최만린(작고/54조소) · 최종태(54조소) 동문의 특별기획전 '분화'가 열리고 있는 김종영미술관에 지난 2월 22일 유영준(58조소) · 임송자(59조소) · 강은엽(62회화) · 김효숙(63조소) · 유당주(63조소) · 김성연(68조소) · 임순재(69조소) · 오귀원(75조소) · 황인자(76조소) · 정연희(78조소) · 백연수(94조소) · 성연진(96조소) · 박민주(05조소) 동문 등 제자 13명이 찾아 오랜만에 사제지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분화'전에 작품을 낸 네 명의 동문은 해방 후 조각을 공부한 1세대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한국 조각 예술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며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전시장에서 스승을 만난 제자들은 현재 한국여류조각가회를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속한 한국여류조각가회는 50주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고, 미술관과 화랑 초대전뿐만 아니라 해외전도 열었다. 제자들은 앞으로도 사제간의 만남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white big bird' 출간 최국강(62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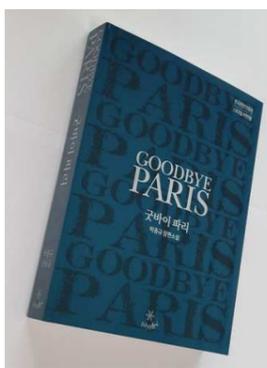
최국강 동문이 지난 3월 'white big bird'를 출간했다. 최동문은 부모의 문화와 다른 곳(캐나다)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삶의 어려움에 두께를 더하게 했다는 자책감과 안쓰러움, 그리고 자식들에게 한국말을 잘 가르치지 못해 그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소통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로, 가슴 한구석에는 늘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며 "모두가 자신들의 부모가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고 어떤 삶을 지향했는지를 이해하



는데, 이 책이 먼 훗날이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최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선배인 최회권(58응미) 동문과 결혼 후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이후 캐나다에서 부부 조각전 "Two Lives In Art"을 갖는 등 현재까지 아티스트로 활약하고 있으며, 본인의 영문 수필집 "White Big Bird"를 쓰기 전, 2020년 남편 최회권의 회고록 '장인의 길', 2021년 'Carving A Path Of Their Own'을 발간했다.

장편소설 '굿바이 파리' 출간 박종규(69응미)

박종규 동문이 지난 3월 1일 장편소설 '굿바이 파리'를 출간했다. '굿바이 파리'는 지금은 잊혀가는 동백림사건에서 무고한 파리 예술인, 교포를 석방하게 한 파리 유학생들의 행적을 좇고 있다. 평양에 들어가 세뇌교육을 받고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유학생들은 철책 너머 '아이 어른'이 되어 소설적 허구의 그릇에 갈래진 이념의 실체를 담아 나간다. 그들 중에는 북핵 개발에 참여했으나 의문의 죽임을 당한 학자도 있었다. 동경에서 서울로, 파리로, 동백림에서 평양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에서 미국으로, 캐나다 퀘벡에서 다시 서울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예술가의 행로는 실화에 바탕을 둔 소설답게 역사적 사실의 현실감이 살아 있는 역사 추리소설이다.



한편 이번 소설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움의 공모에 선정된 작품이라는 것도 눈길을 끈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당대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기울인 부분들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스토리의 대중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작품"이라는 것이 추천작으로 선정한 이유다. 박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원에서 석사, 경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 출강하였다. 저서에 장편소설 『주암마을』 등이 있고, 경기도문학상, 사상과문학상, 원종린 수필문학상, 마포문학상, 김포문학상, 영호남 수필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사제동행전과 함께하는 퇴임 박우룡(80회화)

박우룡 동문이 평생 몸담았던 서울예고 퇴임을 기념하는 본인과 서울예고 제자들의 사제동행전을 주관 및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열렸다. 박동문은 스승과 제자의 오랜 인연을 작품전시로 풀어나가는 동시에 퇴임식을 겸하기로 하였다. 박동문은 퇴임식날 서울예고와 평창동이라는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트스페이스 쉼리아를 전시장소로 선택해 이곳에서 훌륭한 예비작가들의 열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자하였다. 그동안 박동문이 배출한 많은 예술가들도 함께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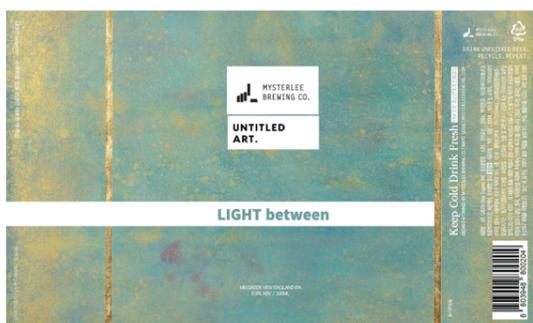


석하여 한 명의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예술고등학교에서 예비예술가들을 평생 양성하며 지나온 추억을 함께 하는 뜻깊은 장이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고, '새로운 형상과 정신', '인천2000'등 5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고 2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서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했으며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예고 미술과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미스터리 브루잉의 언타이틀드 아트 컬래버레이션

박현주(87서양)

박현주 동문의 작품이 지난 1월 11일 미스터리 브루잉의 언타이틀드 아트 컬래버레이션 맥주 '라이트 비트윈'과 함께했다. 경계를 넘어 수묵처럼 빛이 스며드는 색 추상을 담은 박현주 작가의 작품 '29 사이의 빛'을 이번 컬래버레이션 레이블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언타이틀드 아트 Untitled Art는 지난 2016년, 정체된 맥주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해, 매력적인 아트워크를 만드는 비주얼 아티스트와 음료의 본질을 포착하는 사진 작가, 그리고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과 협력해 다양한 음료와 맥주를 만들고 있다. 일종의 회화적 오브제라 할 수 있는 박현주의 작



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고 결국 재료 자체의 성질을 고스란히 작업에 투영하는 것이다. 박동문은 수묵처럼 빛을 머금은 새로운 색 추상을 회화로 표현한다. 신산한 삶이 가져다 주는 슬픔, 절망, 고통 등 여러 부정적 요소들을 '빛'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스스로를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 색 추상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박동문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예술대학에서 유화재료기법을 전공하였다.

MMCA현대차시리즈 작가선정 정연두(88조소)

정연두 동문이 지난 3월 6일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MMCA 현대차시리즈 2023' 작가로 선정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8년부터 활동해온 정연두 작가는 현실과 이미지, 실재와 환영,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진·영상·설치 작품들을 통해 국내외 미술계의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9월 개최되는 'MMCA 현대차시리즈 2023'에서 정동문은 영상 설치작 '백년 여행기'를 비롯해 4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한편 정



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영국 센트럴 세인트마틴과 런던대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수학했다. 2001년 첫 개인전 이후 상하이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에 참가했고, 2005년 11명 작가의 그룹전으로 기획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함께 했다.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2008년에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다큐멘터리 노스텔지어'를 소장했다. 정동문은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안양조장과 다다름 하우스 이광서(94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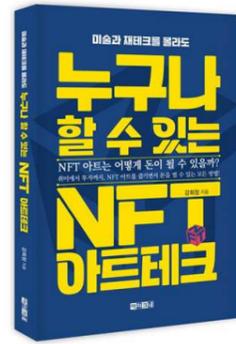
이광서 동문이 이사로 활동하는 장안양조장과 다다름 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동문의 '장안양조장'은 어반업사이클링(도시재생) 협동조합이사장 정인희 대표와 대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자 술을 직접 빚는 역할을 담당하는 손병기 이사와 3인이 만나 새로운 막걸리 문화를 주도하는 공간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유일한 양조장인 '장안양조장'은 시음 행사와 막걸리를 사기 위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대표는 단순한 양조장이 아닌, 장애인·자립 지원 맞춤형 주택 '다다름 하우스'를 짓고 공급하는 아이부키 대표로도 활동



하며 소셜하우징 사업과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생활 가게 등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다름 하우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도심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어린이 창의미술 브랜드 '바탕소'를 창업하였다. 미술교육연구 출판 활동을 거쳐 사회적기업 아이부키를 창업하였다.

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NFT아트테크' 강희정(90디자인)

강희정 동문이 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NFT 아트테크'를 지난 3월 15일 출판사 아라크네를 통해 출간하였다. 이번 저서는 NFT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특히 투자의 관점에서만 NFT를 다루는 것이 아닌 NFT 아트가 포함된 미술 시장 전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NFT의 개념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NFT를 왜 알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한편 강동문은



모교 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졸업하였다. 연세대 연구교수, 동서대 조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디스프레드랩d:Spredlab 디자인연구소와 국제 NFT 아트&디자인 교육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디스프레드랩 디자인연구소에서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도시재생디자인, 사회문제 해결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로 디자인 강의 및 연구를 하고 있다. 20년 넘게 디자인 전문가로 활동하며 제품서비스 관련 디자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홍천군에 아동도서 기증 이유라(08조소)

이유라 동문은 지난 3월 20일 강원도 홍천군에 100만원 상당의 아동신간도서를 기부했다. 도서 기증식은 이날 군수 집무실에서 신영재 홍천군수를 비롯해 신아일보 조덕경 국장, 최덕현 교육체육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형예술작가로 활동 중인 이동문이 전달했다. 이번 아동도서 기부는 홍천군 관내 도서관 활성화와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신아일보 조덕경 국장의 2022년 도서릴레이 확산보급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동문은 "어린이



에게 꿈과 지적능력 함양, 군민들의 푸른 독서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현재 광주시 초월.I.T 지식산업센터의 수석 조형.예술 디자인 본부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며 작품활동으로 수익기금을 조성해 사회 각 계층에 선행을 실천해왔다.

S-ARTMALL

에스아트몰은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소개함으로써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갤러리입니다.

에스아트몰과 함께할 작가님들을 모집합니다.
오리지널 작품뿐 아니라 판화, 공예, 아트굿즈 카테고리를 점차 확대해나가며 함께 에스아트몰을 키워나갈 작가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 할인 가격으로 작품들을 소장하세요.
서울대학교 동문들과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께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MY FIRST COLLECTION〉

이달의 기획전 'My First Collection'을 호응에 힘입어 4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에디션과 아트포스터를 통해 나만의 컬렉션을 시작해 보세요.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sartmall.com

침묵, 살아있는 현재 윤형근(47회화/1928-2007) 최인수(66조소)

윤형근 동문과 최인수 동문의 2인전 '침묵, 살아있는 현재'가 지난 2월 7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송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우리들의 생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소멸된다. 존재의 흔적만이 남겨질 뿐이다. 생성과 소멸의 흐름 안에서 윤동문의 회화와 최동문의 조각은'라는 윤동문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장이다. 단색화 계열 작가들이 종종 현실에서 눈을 돌렸다는 비판을 받는 것과 달리 윤동문은 누구보다 현실에 직면하여 투쟁한 작가로 꼽힌다. 윤동문은 의미를 지시하기보다 존재의 형태로, 생성의 흔적으로, 침묵의 현전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공간에서 공명한다. 여기서 침묵은 말이 없는 침묵이 아니다. 윤동문의 회화는 '말을 안으로 확산시키는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말까지도 감싸버리고 마는'(나카하라 유스케) 그런 맥락의 침묵이다. 한편 최인수 동문은 무의식과 몸의 흔적이 야기하는 움직임에 주목하는 작가다. 우리 고유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여백과 기의 조화, 재료 이전의 물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를 작품으로 구현하였다. 윤동문은 모교 회화과에 입학하였으나 제적당한 뒤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경원대학교 총장과 한국미술협회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윤동문의 작품은 테이트 모던, 시카고아트인스티튜드, 로이틀링겐 미술관 등에서 소장 중이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동대학원, 독일 국립 칼스루헤 미술대학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모교 명예교수이다.

Five-colored Light 김형대(56회화)

김형대의 동문의 '후광' 연작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개인전 'Five-colored Light'가 지난 2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헬렌 제이갤러리에서 열린다. 오늘날 동세대 단색화가들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음에도, 김동문은 분명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1세대 작가다. 1961년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6.25세대로서, 한국전쟁 후 격동기를 몸소 겪어내며 방황과 좌절, 울분과 저항을 앵포르멜(비정형) 화풍으로 표현했다. 기성 화단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출발한 벽동인(壁同人)의 창립 멤버였으며 국전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상을 수상한 첫 추상미술 작가다.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도 작품 활동을 계속한 그는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기도 했다. 김동문은 어릴 적 어머니의 포목점에서 본 비단과 모시, 그것을 통과하던 은은한 빛을 모티프로 삼아 단색 추상화를 만들어냈다. '보이는 빛과 가려진 빛'이라는 후광의 양면성은 그가 화면에 투사한 비표상 그 자체가기도 하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한국전쟁 후 격동기의 방황과 좌절을 앵포르멜로 표현했다. 기성 화단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출발한 벽동인 창립멤버였으며, 국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상을 수상한 첫 추상미술작가였다.

Homage to Homo sapiens 곽훈(59회화)

곽훈 동문의 'Homage to Homo sapiens'전이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예화랑에서 열린다. 최근 몇 년간 작가가 몰입하여 그려온 신작 50여 점과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1층에 설치되는 6미터의 대규모 회화 설치 작품이다. 1층의 벽 하나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무수한 찻사발의 반복은 작가가 초기부터 꾸준히 해온 '다완 (Tea Bowl)' 시리즈를 연상하게 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사유하는 행위의 정적이면서도 깊은 에너지를 표현한 이 작품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의정의 그 자



체이며, 작가는 이에 경의를 표함으로써 새로운 인류의 미래를 꿈꾼다. 곽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미술학 학사, UCLA 대학원 미술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롱비치교대학원에서 순수미술학 석사를 받았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처음으로 한국관이 개관할 때 전시 작가로 '마르코 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을 테마로 '겁/소리'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후 동양철학의 정수를 한국적인 모티브인 도기, 흙, 나무 등을 사용해 한국적인 조형언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는 추상표현의 대가라는 평을 받았다.

빛의 전언 김인중(59회화)

김인중 동문의 개인전 '빛의 전언'이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카이스트 경영대학 미술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작품은 물론 김동문이 최근 제작 중인 스테인드글라스기법의 유리공예·도자기작품 및 LED 조명을 이용한 새로운 작품도 선보인다. 또한 지난 3월 16일 열린 오프닝과 식전 강의에서 김동문은 세상을 빛으로 구원하고자하는 사명을 예술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11세기에 지어졌던 바실리카성당 되살리기 공모에서 김동문이 제작한 창의적 스테인드글라스는 김동문에게는 공모 1등을, 성당에게는 미술랭 최고등급인 3등급을 안겨주었다. 김동문은 이처럼 예술을 통해 폐허를 관광도시로 승화시킨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도 유사



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문은 현재 안면도 빛섬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김인중 미술관을 건설하는 중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65년 한국미술대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과 파리가톨릭대학에서 수학하고 1974년 프랑스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였으며, 전 세계 200여 회 전시와 프랑스 샤르트르대성당을 비롯한 유럽 50여 개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해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상하였다. 현재 카이스트 중앙도서관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문섭: 시간의 향해 심문섭(61조소)

심문섭 동문의 개인전 '심문섭: 시간의 향해'가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미술관 1·2층 전관에서 펼쳐지는 향하는 전체 4개 섹션으로 구성해, 심동문의 '반(反)조각'을 향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작업 여정을 드러낸다. 전시 제목인 '시간의 향해'는 심동문의 작품에 교차하는 시간성과 장소성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바다를 중심에 둔 채 결코 한곳에 정박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군분투했던 그의 작업 태도를 함축한다. 한편 심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1969~1971년 3년 연속 수상하였다. 당시 '제3조형회',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 등 전위적 미술그룹에 동참하며 기존의 전통적 조각 개념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다. 1971~1975년 파리비엔날레에 3회 연속으로 참가하였고, 1975년 상파울루비엔날레, 1976년 시드니비엔날레 등에 출품하여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1987년 서울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 1997년 통영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을 각각 개최했다.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에 백남준과 함께 한국 대표작가로 초청받았고, 2001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참가하였다. 2007년 프랑스 슈발리에 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11 회원동정-전시

장전 오세영(1939-2022/62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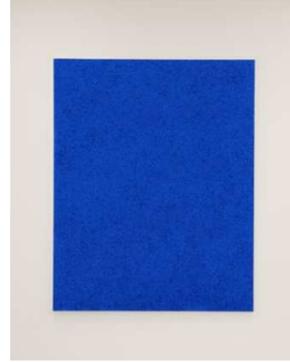
지난해 작고한 오세영 동문의 추모전 '장전'이 지난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오동문은 40여년 전에 '도전 정신과 실력'으로 세계에 한류(Korean Wave)의 씨를 뿌린 예술가이다. 1970~80년대 김종학, 남관, 윤명로, 이강소, 장욱진, 최욱경, 하동철, 한운성 등과 함께 활동하던 그는 1980년부터 재미화가로서 도전과 실험적 모색을 통해 뉴욕 소호는 물론, 세계 화단에서 유명 현대미술가들과 활동하며 한국미술의 우



수성을 알렸다. 오동문은 모교 회화과, 홍익대 대학원 공예과와 뉴욕 프랫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1979년 영국국제판화비엔날레 특별상, 1985년 워싱턴 미국평론가선정 '외국작가 10대 작가상', 1991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디트리페화랑과 뉴욕 몬태그화랑 공동주최 국제공모전 최우수작가상을 수상하였다.

Ultra-Marine 김춘수(77회화)

김춘수 동문의 개인전 'Ultra-Marine'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신라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2000년대에 들어서 '무제', '희고 푸르게'의 시리즈를 통해 그리기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했고, 그 대담으로 '몸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며 작가는 '그리지 않게' 되었고 언어 너머의 세계를 말하려 한다. 30여 년 전, 서양의 물감인 '블루'에 이끌려 시작한 '울트라 마린'은 지금까지 김동문의 작품세계를 대변하는 빛이며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이면서도 주요한 요



소이다. 김동문은 신체의 일부인 손바닥과 손가락에 청색을 묻히고 그것을 흰색으로 덮는 행위의 반복함으로써 세계와 나, 나와 그림이 하나가 되는 듯한 명상의 세계를 보여주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속하는 삶의 표상을 선보인다. 김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회화과 졸업후 캘리포니아주립대 대학원 회화과와 뉴욕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97년 토탈미술상, 2007년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스페인 알갈라대 초청연구원을 거쳐 1996-2022년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연결 민수정(82회화)

민수정 동문의 개인전 '연결'이 지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아트센터에서 열려 신작 '다랑이논' 시리즈 등을 보여 주었다. 남해를 여행하던 민동문은 높은 산지의 좁고 긴 논이라 기계농사를 지을 수 없어 비워놓은 다랑이논의 계단사이에 핀 유채꽃 노란색에 주목했다. '다랑이논' 시리즈는 조각의 완성을 유보함으로써, 과거 삶의 흔적을 기억하고자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다. 논이 곡선을 따라 작은 캔버스를 연결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민동문은 상단의 캔버스 일부를 마치 전체에서 이가 빠진 듯 빼놓고 가운데



캔버스는 맞추다 만 퍼즐조각처럼 푼 붙여놓았다. 한 때는 중요했던 것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물리적인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에서 민동문은 퍼즐을 떠올렸고, 다 맞춘 퍼즐에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작품에 담았다. 민동문은 모교 회화과 졸업 후 3회의 개인전과, 2022년 Global Art Fair Singapore과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초대작가로 참가했으며, 매년 그룹 터전, 한울회전에 참여하고 있다.

울릉도 단상 조래원(75회화)

조래원 동문의 개인전 '울릉도 단상'이 오는 4월 5일부터 18일까지 종로구 토포하우스 초대로 열린다. 11년만의 개인전으로 그동안 조동문은 울릉도에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바다에는 하늘이 있고, 파도가 있고, 갈매기가 있고, 그리고 섬 주변의 가족같은 조그만 바위섬들이 있다"라고 작가노트에 쓴 조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갈매기의 쉼터인 바위섬, 각자 생긴 모습대로 들이치는 파도를 맞느라 분주한 바위섬들을 화면에 옮기면서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자연 속 삼라만상이 상호공명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들을 현대인들의 바쁜 삶과 대비시켜본 다양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한국화 기본재료인 자·필·묵·용이용해 형상화하고 다듬어, 수묵에서의 점선·면을 어떻게 구축해나갔는지를 볼 수 있다. 조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회화과 졸업후 7회의 개인전과 목조전 및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작품활동을 해왔다.

조래원 개인전

ChoRaeWon Solo Exhibition 2023

2023. 4. 5 - 4. 18

서울 종로구 인사동11길6
토포하우스 제3전시실
Tel. 02-734-7555

후원광고
울릉도, 화선지, 먹 311.5x137cm, 2020

제주 작가 마سم 박성진(83서양)

박성진 동문이 임춘배 작가와 함께 '제주 작가 마سم전'을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는 4월 23일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제주작가 마سم은 '제주 작가입니다' 라는 제주도 표현으로, 제주 화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공헌한 원로, 중견작가들의 작품세계를 개괄하고 제주 미술의 역사와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전시다. 제주에 정착한 후 '제주 사람'과 '제주 자연'에 동화되어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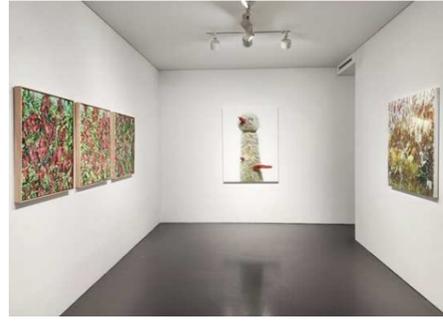


있는 박동문의 작품을 기획전시실 1 '박성진:사람, 자연, 제주와의 동행'에서 선보인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서양화 판화를 전공했다. 단국대학교, 신구전문대학교, 계원예고 강사를 거쳐 1995년부터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7년간 재직했다.

있는 박동문의 작품을 기획전시실 1 '박성진:사람, 자연, 제주와의 동행'에서 선보인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서양화 판화를 전공했다. 단국대학교, 신구전문대학교, 계원예고 강사를 거쳐 1995년부터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7년간 재직했다.

화론전 이창남(85서양)외 7인

세번째 '화론전'이 지난 3월 8일부터 25일까지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이창남(85서양), 한수정(86서양), 이광호(87서양), 이만나(89서양), 김정선(90서양), 이정은(90동양), 김제민(98서양), 신수진(99서양), 허보리(99서양) 동문이 참가했다. 이창남 동문은 꽃의 생명력에 천착했다. 한 꽃이 시들어도 유사한 모양의 꽃이 싱싱하게 피어서 사람에게 전하는 화기(和氣)를 보듬는다. 한수정 동문은 단순한 변화를 주어 이질적인 이미지로 바뀌는 과정을 확대된 꽃 이미지만으로 그리거나 꽃의 형태를 깨트리며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광호 동문은 초상화와 선인장 연작을 통해서 주변과 독립된 개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상을 뚜렷이 표현했다. 이만나 동문은 평범한 대상들이 어느날



생경함으로 다가올 때 형언할 수 없는 울림 같은 무언가가 전해진다고 한다. 김정선 동문은 배꽃 연작과 산수유꽃을 통해 발화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순간이 지난 뒤의 그리움을 전해준다. 김제민 동문은 도시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풀들에 집중한다. 이정은 동문은 SNS에 올려진 반려견 사진, 엄마의 화병 등을 그리며 그때의 상황과 연결된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신수진 동문은 꽃의 개념을 자연으로 확대해 작은 잎씨앗 등이 모여 빛을 만들어내는 서사를 담았다. 허보리 동문의 한곳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낸 풍경은 복잡한 삶 속의 도피처 역할을 한다.

생경함으로 다가올 때 형언할 수 없는 울림 같은 무언가가 전해진다고 한다. 김정선 동문은 배꽃 연작과 산수유꽃을 통해 발화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순간이 지난 뒤의 그리움을 전해준다. 김제민 동문은 도시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풀들에 집중한다. 이정은 동문은 SNS에 올려진 반려견 사진, 엄마의 화병 등을 그리며 그때의 상황과 연결된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신수진 동문은 꽃의 개념을 자연으로 확대해 작은 잎씨앗 등이 모여 빛을 만들어내는 서사를 담았다. 허보리 동문의 한곳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낸 풍경은 복잡한 삶 속의 도피처 역할을 한다.

시간/물질: 생동하는 뮤지엄 신미경(86조소)

신미경 동문의 개인전 '시간/물질: 생동하는 뮤지엄'이 지난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코리아나미술관과 화장박물관이 공존하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스페이스 씨(Space C)'에서 개최된다. 신동문은 지난 30년 가까이 서양의 고전 조각상이나 동양의 도자기 등의 문화적 유산을 비누라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재료를 통해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쉽게 마모되고, 녹아 사라지는 재료인 비누는 작가가 탐구하는 시간성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로 오랜 시간 활용되어 왔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품마다 다른 표면의 질감과



물질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였다. 이후 런던 슬레이드 미술대학과 영국 왕립 예술학교를 졸업했다. 2015년 프루덴셜 아이 어워즈 최고의 떠오르는 아티스트 조각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시립미술관, 미국 휴스턴 미술관, 영국 예술위원회, 영국 브리스톨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물질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였다. 이후 런던 슬레이드 미술대학과 영국 왕립 예술학교를 졸업했다. 2015년 프루덴셜 아이 어워즈 최고의 떠오르는 아티스트 조각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시립미술관, 미국 휴스턴 미술관, 영국 예술위원회, 영국 브리스톨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그림의 기후 정주영(88서양)

정주영 동문의 개인전 '그림의 기후'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현대에서 열렸다. 정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작품세계를 산 너머 혹은 산 위의 공간인 구름과 하늘로 확장했다. '기상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Meteorology'의 'M'에서 제목을 딴 'M' 연작은 다양한 하늘의 모습을 담았다. 다양한 색과 획으로 자연을 담은 'M21'은 실제의 자연처럼 끝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놀라운 느낌을 선사한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서양화



과를 졸업한 뒤 독일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네덜란드 드 아플리에를 졸업했으며,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에서 안 디베츠 교수에게서 마이스터슐러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누크갤러리(2021), 이목화랑(2020), 갤러리현대(2013-2017)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그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신세계 갤러리, 아트선재센터 등에 소장되어 있다.

과를 졸업한 뒤 독일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네덜란드 드 아플리에를 졸업했으며,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에서 안 디베츠 교수에게서 마이스터슐러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누크갤러리(2021), 이목화랑(2020), 갤러리현대(2013-2017)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그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신세계 갤러리, 아트선재센터 등에 소장되어 있다.

숲길을 걷다 멈춘 자리의 기록 노경희(01서양)

노경희 동문의 개인전 '숲의 기록'이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M 큐브에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개최됐다. 노동문의 작품세계에서 산은 때가 오면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는, 생성과 소멸의 장소다. 12점 모두 사진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세밀하다. 미세한 빛과 나뭇가지의 모양, 잎사귀의 그림자, 흙과 돌의 이끼까지 눈앞에 그대로 재현한다. 파스텔로 그린 작품에선 따뜻한 질감이 묻어난다. 눈부시게 맑은 날과 안개 낀 새벽,



한겨울의 추위까지 그림 속엔 작가가 산에 올랐던 그 시간의 기록이 그대로 담겼다. 이번 전시에선 두 점의 하늘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흘러가는 구름의 순간을 포착해 '단 한 번도 같지 않았을' 구름의 모양을 담아냈다. 한편 노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나와 영국 슬레이드대에서 석사를 마친 뒤 수년째 숲을 탐구해왔다.

한겨울의 추위까지 그림 속엔 작가가 산에 올랐던 그 시간의 기록이 그대로 담겼다. 이번 전시에선 두 점의 하늘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흘러가는 구름의 순간을 포착해 '단 한 번도 같지 않았을' 구름의 모양을 담아냈다. 한편 노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나와 영국 슬레이드대에서 석사를 마친 뒤 수년째 숲을 탐구해왔다.

열암곡 부처님 모시기 프로젝트 황규철(89동양)

황규철 동문이 '붓다아트페어'와 함께 제2관 '주제전'으로 열리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프로젝트'로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참가한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프로젝트에는 백시멘트로 블록 12개를 만든 뒤 그 위에 '재' 뿌려 부처님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기암괴석이 많은 열암곡을 옮겨 놓듯이 블록 12개 가운데 몇 개는 쌓아 올리고 몇 개는 도열시켜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황동문은 풍경화와 인물화, 비구상(추상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그림을 그렸다. 특히 재료 구현에 제한을 받



지 않고 작품 활동을 전개한다. 동양화를 전공한 만큼 화선지와 붓은 기본. 스테인리스 스틸, 백시멘트, 부식액, 녹슨 철 나무, 재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도 등장한다. 한편 황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2010년 불교미술대전 장려상을 비롯해 2016년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 2019년 용성문화제 '올해의 불교미술인상' 등을 수상했다. 본제선원 초대전과 미국 애리조나 쇼로우 홀리데이인 초대전 등 수차례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지 않고 작품 활동을 전개한다. 동양화를 전공한 만큼 화선지와 붓은 기본. 스테인리스 스틸, 백시멘트, 부식액, 녹슨 철 나무, 재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도 등장한다. 한편 황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2010년 불교미술대전 장려상을 비롯해 2016년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 2019년 용성문화제 '올해의 불교미술인상' 등을 수상했다. 본제선원 초대전과 미국 애리조나 쇼로우 홀리데이인 초대전 등 수차례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13 회원동정-전시

해빙(解氷) 최혜인(90동양)

최혜인 동문 개인전 '해빙(解氷)'이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트레온 갤러리에서 열린다. 최동문은 음식을 소재로 생명성을 탐구한다. 최동문은 이 식재료들을 가사 노동의 지겹고 익숙한 존재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이자 작업의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로 표현한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양화과 석사와 서울대 대학원 미술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1995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계열 입선



2008년 소마(Soma)미술관 드로잉 센터 제3기 아카이브 등록 작가 선정, 2009년 Seoul Open Art Fair 10 Young Artists에 선정되고 다수의 단체전과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우리 그림, 그려볼까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등을 공동저술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미술영재교육 : 꿈키아트스쿨 연구위원과 강사 및 서울대학교 박물관 어린이 미술교육을 거쳐 현재 미술교육 '꿈키아트스쿨' 커리큘럼을 개발 및 강의하고 있다.

땅을 보며 걷는 사람 이경하(00서양)

이경하 동문의 개인전 '땅을 보며 걷는 사람'이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M에서 열렸다. 이동문의 작품은 화가의 감각이나 관습에 의한 배치가 아닌, 중력과 바람으로 우연히 놓인 낙엽, 열매, 돌맹이, 가지의 색과 배치의 완벽성을 통해 생명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표현한다. 이동문의 이번 전시는 갤러리M M'Cube에서 진행되는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영 아티스트와 지역기반 지역 청년작가, 새롭고 도전적 감각의 영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동문은 이화

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2009년 Soma drawing center 4기 archive등록작가로 선정되고 2011년 유중재단 레지던시, 2012년 장흥아뜰리에 입주작가, 2013년 63스카이 아트미술관 New Artist Project 신진작가로 선정되었다.



2009년 '삼각형 드라마코드-현실과 이상의 간극', '이인 이각'부터 2021년 '식물이 있는 풍경', 2022년 '경계조건' 등 다수의 단체전과 2020년 '공터' 등 다수의 개인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원 위에 숨 김성철(00디자인)

김성철 동문의 개인전 '원 위에 숨'이 지난 3월 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보광로에 위치한 가나아트 보광에서 열렸다. 김동문의 이번 개인전은 호롱의 조형적 미학을 새삼 느껴볼 수 있는 장이었다. 김동문의 이번 작품은 백자토로 만든 서정적이고 섬세한 형태의 도자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작품으로 도예 작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 위에 숨'이라는 전시명처럼 작가의 영감의 원천이 된 둥근 호롱은 사람들의 들숨과 날숨에 따라 흔들리는 다채로운 빛의 환영을 선사하였다. 김동문은 모든 작업 단계를 수공으로 하였다. 작품은 달 항아리의 성형 방식처럼 상하부를 동일한 형태와



크기로 물레 성형한 뒤 이를 하나로 결합한다. 특히 작고 가느다란 심지뿔이는 정교한 물레성형 기법의 극치를 보여준다. 전시장에서는 2m에 달하는 폐쇄된 공간에 호롱(불)을 설치해 엿볼 수 있게 했다. 좁은 창과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게 전시는 마치 오래된 집이나 성전(shrine)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전했다. 고요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작품은 바티칸 교황청,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도예전공을 졸업하고 2013년 사치갤러리에서 열린 COLLECT 2013 기획전 등에 참여하였다.

위안의 뜰 송지현(06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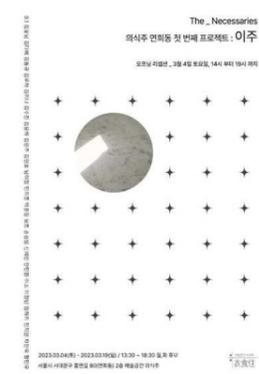
송지현 동문의 개인전 '위안의 뜰'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보름산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모교 동양화과와 보름산미술관의 5번째 협업 프로젝트 전시이다. 송동문은 비단 위에 석채(石彩) 등의 전통 안료를 주로 사용하면서, 지극히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극사실에 가까운 동식물의 모습과 인간의 감성적 표정을 매치시키면서 '위안'이라는 특정한 정서를 따뜻한 분위기로 담아낸 표현



능력이 보는 이의 눈길을 끈다. 송동문은 작가노트에서 녹색의 식물과 작은 동물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이 주는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작품으로 풀어내 곁에 두고싶은 포근하며 아름다운 자신만의 뜰을 표현하였다고 밝혔다. 송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현재 서울대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주 황규민(석19동양)

황규민 동문이 참여한 단체전 '의식주 연희동 첫 번째 프로젝트: 이주'가 지난 3월 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예술공간+의식주에서 열렸다. 황동문 외 총 23인의 시각예술가들이 참여하여 회화, 조각,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영역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예술공간 의식주가 서교동에서 연희동으로 이주하며 개최한 첫 번째 프로젝트다. 한편 황동문은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미술대학원 동양화과를 다니고 있다. 단체전



'개인사회'(2020,우민아트센터) '토끼추격자'(2020, 동래문화회관), '민관의 은:접시'(2022, 1응접실), 'SUNSET+FIELDSET'(2022, 고양예술창작공간 해움)등에 참여했으며, 개인 상영회를 개최해 '나는 너를 지킨다', '나를 지켜줘', '터전의 끝', '야생 속으로' 등 4점을 상영하였다. '터전의 끝'을 지난 2020년 8월 동안 개최되었던 22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에서 상영하기도 하였다.

집으로 가는 길 이승은(14동양)

이승은 동문의 개인전 '집으로 가는 길'이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서울대학교 74동에 위치한 우석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동문의 이번 전시는 밀 빠진 독처럼 의미와 방향을 잃은 갈증 나는 광야에서 충분한 만족과 충분한 심을 제공하는 '집(home)'을 발견하는 기쁨에서 출발하였다. 2021 첫 개인전 '삶의 그 자리에서'는 처한 자리에서 광야를 재정의하는 고민의 흔적과 집을 향한 갈증을 다루었다면, 이번 전시 '집으로 가는 길'은 집으로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실행의 여정과 일희일비를 풍경에 담아 다루었다. 동시에 집의



발견은 길의 초점이 되어주는 것 일뿐 평탄한 땅과 아름다운 풍경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었음을 배우고 인정하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삶의 그 자리에서'(2021, 갤러리도스), SNU장학기금마련전(2022,SNU장학빌딩)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서울문화재단x도미노피자 시각예술 신진작가 작품 공모전에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동문의 작품이 담긴 피자박스가 출품되기도 하였다.

4월의 전시



어릿광대의 아침

강호성(02동양)
2.13 - 4.30
호암교수회관



I-EXPLORER

류은선(16동양)
2.28-5.14
H.ORM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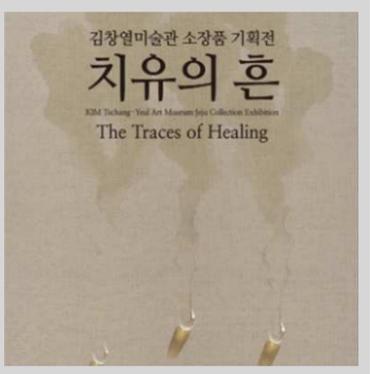
흙갈피

윤형근(47회화)
3.2-4.8
BH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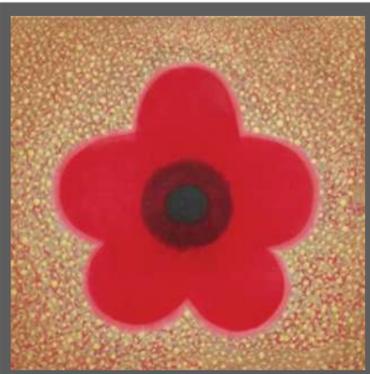
**시간/물질: 생동하는
뮤지엄**

신미경(86조소)
3.2 - 6.10
스페이스 씨



치유의 흔

김창열
3.7-7.9
김창열미술관



생명의 노래

김병중(74회화)
3.9-4.20
Gallery U.H.M



제주작가마춤

박성진(83서양)외 1인
3.10-4.23
제주도립미술관



PARAN

채성필(91동양) 외 2인
3.14-4.8
갤러리조은



gleam

국대호(85서양)
3.16-4.6
갤러리비케이 한남



無, Be Nothingness

배형경(74조소)
3.16-4.20
갤러리시몬



빛의 전언

김인중(59회화)
3.16-12.29
KAIST 미술전시장



해빙(解氷)

최혜인(90동양)
3.17-4.6
아트레온 갤러리



심문섭: 시간의 향해

심문섭(61조소)
3.17 - 6.25
경남도립미술관



창작과 실증

오천룡(61회화)
3.23-4.23
가나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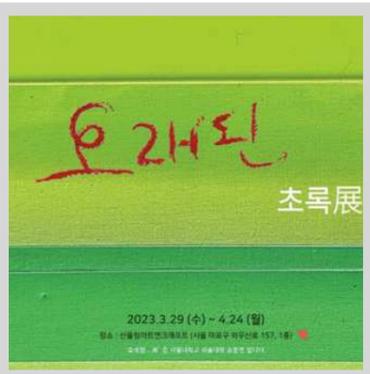
flop

홍민기(11조소) 외 5인
3.24-8.6
소마미술관



I SEE YOU

서용선(75회화)
3.28-4.22
장 디자인아트



오래된 초록

김인경(74응미)외 동문6인
3.29-4.24
산울림아트앤크래프트



Skeen Deep Still Life

정상곤(83서양)
3.29-4.23
통인화랑



울릉도 단상

조래원(75회화)
4.5-4.18
토포하우스



전환기, 경계에 선 김종영

김종영(명예회원, 1915-1982)
4.7-6.18
김종영미술관